

---

# 교대생의 체육수업에서 재미요인 분석

## Analysis of Enjoyment Factors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University Students of Education

김재운  
경인교육대학교

Chae-Woon Kim(cwkim1@ginue.ac.kr)

---

### 요약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대체적으로 학문적 관심에서 소외되었던 예비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거리, 흥미거리, 또는 체육수업 참여 촉진 요인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G 교육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30명에게 보고서 형식의 개방형 질문지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먼저 연구자는 체육수업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의 원자료에서 구체적인 주제나 의미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주제라고 간주되는 요인의 귀납적인 분석을 거쳐 일반적인 개념이나 상위의 개념으로 통합 분류하였다. 또한 연구자료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와의 검토,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쳐 자료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예비 초등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선호요인, 또는 체육수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적극적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해소, 둘째, 체육교사의 인간적 유대관계, 셋째, 신체활동을 통한 성취의 기쁨, 넷째, 아동의 입장에서 칭찬을 통한 자신감 부여, 다섯째, 흥미유발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시, 여섯째, 공동체 의식과 상호작용의 즐거움 이었다.

■ 중심어 : | 교대생 | 체육수업 | 재미요인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enjoyment factors experienced in PE class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30 students attending in G University of Education were selected in this study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pen-ended questionnaire and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have classified the enjoyment factors of pre-service teachers in PE classes.

- First, happiness of achievement through physical activity
- Second, inspiration of self-confidence through praise
- Third, variety of program presentation for arouse interesting
- Fourth, desire expression to aggressive physical activity
- Fifth, personal relationship of PE teacher
- Sixth, enjoyment of community spirit and interaction

■ keyword : | University Students of Education | Enjoyment Factor | Physical Education Class |

---

\*본 논문은 2007년도 경인교육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80930-003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27일

접수일자 : 2008년 09월 30일

교신저자 : 김재운, e-mail : cwkim1@ginue.ac.kr

## 1. 서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를 앞두고 가졌던 설레임과 운동회 당일 행여 비라도 오면 어찌나 하는 걱정, 그리고 체육수업시간의 즐거웠던 여러 경험 등 신체활동과 관련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초등학교 시절의 신체활동 경험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노년기까지 영향을 미쳐 평생체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신체활동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의 체육수업이라는 점에서 어느 교과와 수업에 비해 초등 체육수업은 그 중요성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교과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단연 체육교과의 선호도가 1위를 차지한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동들에게 “어떤 분이 담임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니?”라고 질문하면, 많은 아동들은 체육수업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담임을 맡기를 희망한다고 대답한다. 담임교사가 전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현실에서 아이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 여부는 단연 담임교사의 역할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6].

학생들은 학교 체육수업에 참가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이 긍정적인 수도, 부정적인 수도 있다. 물론 긍정적인 경험이 높을수록 그 경험을 다시 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유발시키는 것을 체육수업에서의 ‘재미거리’라고,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시키는 것을 ‘걱정거리’라고 부를 수 있다[14].

체육수업에 대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 참여의 문제는 체육교육에서 전통적인 관심거리 중 하나였다. 체육수업에 대한 태도나 체육수업 동안의 경험을 분석한 많은 연구결과는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잘 나타내 준다. 이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극대화하고 과제에 대한 동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체육수업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중의 하나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선행연구의 일반 사회과학분야에서 정서와 동기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접근[2]은 재미거리와 관련이 있으며, 그 동안 스포츠동기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

던 스트레스 연구는 걱정거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체육학에서 수행된 재미거리와 걱정거리의 연구는 “과연 학생들이 체육수업이나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스포츠에서의 재미에 관한 최근 연구경향은 재미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찾아냄과 동시에 재미가 강한 동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스포츠 재미가 지속적인 스포츠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재미거리(source of enjoy)는 Scanlan, Carpenter, Lobel, 그리고 Simon등[21]이 제시한 스포츠전념모형(sport commitment model), 즉 스포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 및 결심과 관련된 이론을 통해 부각된 연구주제로서 스포츠 체험에 대한 즐거움, 좋아함, 재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의미한다.

실제로 청소년의 신체활동 참가 동기를 규명한 연구들[2][19]을 살펴보면 “재미” 및 “즐거움”이 신체활동에 참가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에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재미가 신체활동 참가의 중요한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스포츠 종목, 참여수준,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보인다.

체육수업이나 스포츠에서 긍정적인 체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다양한 재미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교사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체육수업시간에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경험하는 “재미”의 체험은 과제에 대한 개입과 노력의 수준을 증대시키는 자기-동기화(self-motivation)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체육수업에서 체험되는 다양한 재미거리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은 교사의 수업 행동이나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지도내용 개선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스포츠 활동의 즐거움 혹은 재미 요소를 분석한 일련의 연구들은 다양한 재미 체험이 청소년 스포츠에서 참가나 지속행동의 중요한 동기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재미 체험이 몰입과 노력을 증대시켜 차후 체육활동에 대한 선택이나 지속과 같은 동기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동기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9].

체육교사들의 수업목표를 분석한 연구에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체육수업이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수업목표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체육 수업을 선택한 이유나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 역시 재미와 즐거움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5][17][22].

지금까지 체육학에서는 재미거리와 걱정거리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져 오고 있는데 대다수의 연구가 중등학교 학생들의 경험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현장에서 장차 체육수업을 담당하게 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요인 또는 체육수업이나 스포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체육수업이나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경험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현장 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예비초등교사(교대생)들이 학창시절 체육수업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여야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일선 학교 교사가 되어서 재미있는 체육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의 수업 재미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미래의 초등교사인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학교 체육수업시간에 경험한 재미요인이나 흥미유발 요인, 또는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교사가 학교체육수업 시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예비 초등교사가 경험한 체육수업의 재미요인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참여자는 경인지역에 위치한 G교육대학교 3학년 재학생 30명이다. 이들은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후 필수과목으로 1학년에서는 체조위주의 실기수업을 수강하였고, 2학년에는 이론위주의 체육교육1과 실기위주의 구기수업, 그리고 3학년이 되어서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육교육2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보고서 형식의 개방형 질문지로, 2008년 1학기 체육교육 수업에 참가한 연구대상자들에게 먼저 체육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체육수업(재미있었던 최상의 수업, 또는 체육수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던 동기요인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학생 개인과 그 당시 수업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본인이 졸업 후 초등교사가 되었을 경우 체육수업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에서 먼저 연구자는 체육수업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의 원자료에서 구체적인 주제나 의미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주제라고 간주되는 요인의 귀납적인 분석을 거쳐 일반적인 개념이나 상위의 개념으로 통합 분류하였다. 즉, 의미 있는 원자료들은 공통적인 주제별로 묶어서 상위의 개념인 세부영역으로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세부영역의 주제들은 의미가 서로 상통하는 주제로 묶어서 일반영역으로 분류되었다.

### 3. 자료의 진실성

본 연구에는 자료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와의 검토,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원자료를 분류하고 해석한 결과의 정확성과 해석상의 차이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와의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교직경력 10년 이상인 체육교사 2명과 체육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2명에게 자료의 수집과 분석, 해석 과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하

여 자료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 III. 결과분석 및 논의

본연구의 목적은 예비 초등 교사들이 지금까지 체육 수업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체육수업의 재미요인, 흥미요인, 또는 체육수업에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체육수업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여기서는 내용 분석 절차를 거쳐 도출된 6개의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요인(적극적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해소, 체육교사의 인간적 유대관계, 신체활동을 통한 성취의 기쁨, 아동의 입장에서 자신감 부여, 흥미 유발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시, 공동체 의식과 상호작용의 즐거움)에 대해 분석해 보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 적극적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해소

연구대상자 중 신체활동을 선호하는 대다수의 남학생들은 신체활동과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선호요인, 그리고 체육수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움직임의 욕구를 발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수업이 있던 날에는 아침부터 설레고 그날 비라도 심하게 오게 되어 체육수업을 실내에서 하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던 기억이 난다. 특히 학기별로 새로운 시간표가 나오는데 그때면 체육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있으며, 무슨 요일 몇 번째 시간에 있는 가부터 확인하곤 했다.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체육 시간표란 일주일에 3일 이상이며, 하루 수업 중 1교시나 5교시에 체육 수업이 있는 것이다. 점심시간을 운동 없이 보낸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죄를 짓는 일이었다. 따라서 식사는 5분 만에 하고 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간다. 점심시간의 운동장은 그야말로 추석날의 고속도로 그 모습 그대로다. 대부분 아이들은 축구를 했는데 그야말로 본능적인 감각으로 드리블과 패스를 해야 했다. 아무튼

이렇게 남은 시간동안에 축구를 하면서 놀다가 만약 다음 5교시가 체육 시간이 아니라면 혈레벌떡 땀 범벅인 채로 듣기 싫은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바로 체육 수업이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3시간의 체육 수업을 하는 것 같은 체감효과를 느낄 수 있었고 우리의 황홀감은 극에 다 달았다(과학, 박인기).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남학생들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체육이라는 교과는 비단 체육 수업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학교 뒷동산을 산책하기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조절은 살아가면서 인간이 갖는 자유이자 권리일 것인데 그동안의 학교 교육은 국어, 수학과 같은 기본 교과와 과학, 사회와 같은 내용교과에 대한 교과교육에만 치중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또 이를 기본 조건으로 하여 건강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며 또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비 초등 교사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2. 체육교사의 인간적 유대관계

예비 초등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또 다른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선호요인, 그리고 체육수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체육교사와의 관계를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체육수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서 교사가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략 선생님의 역할도 체육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저희와 같이 게임에 참여하시면 괜히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그 순간만큼은 느낄 수 없었고, 저희와 똑같이 숨차하시고 땀 흘리시는 모습이 친근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윤리, 김미량).

이는 비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교사가 체육수업의 재미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백성수와 성창훈[9]의 연구와 체육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사 때문이라는 결과를 제시한[5][13]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은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는데[1], 특히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상황적 요소는 교사와 학생간의 개별적인 관계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체육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이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에 교사와 관련된 요인이 학생들의 체육수업에서의 재미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체육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교사의 교수능력 보다는 인간성이나 유머 감각 등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연구[7]에서도 알 수 있으며, 문은식[10]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었는데, 체육수업 선호의 요인으로 교사의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 3. 신체활동을 통한 성취의 기쁨

예비 초등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선호요인, 그리고 체육수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세 번째 요인으로는 신체활동을 통해 성취하는 즐거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경우 대다수가 신체활동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데,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과제나 기술을 성공하게 되면서 느끼는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인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다시 체육수업을 받을 일이 없겠지 싶었는데 대학교에 입학해서 과목 중 제일

싫었던 체육을 또 하게 되었다. 그것도 다리벌려 앉구르기, 뒤구르기, 물구나무서기, 뽀뽀 등등 어려운 것만 해야 한다니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왕 해야 하는 거 마음을 고쳐먹고 꼭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다. 그러다보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고, 그래서 한 종목씩 성공하게 될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태어나서 다리벌려 앉구르기를 성공한 것도 처음이고 뒤구르기를 성공한 것도 물론 처음이고, 물구나무서기 역시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고, 뽀뽀는 보기만 해도 무서웠는데 모두 성고하다니, 내가 20년을 넘게 살면서 하면 된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았던 때가 바로 그때인 것 같다. 체육수업을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게 비록 도전하는 것이 겁나고 힘들었지만 연습을 거듭 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정말 좋았다. 몸을 움직여서 뭔가 이룬 성취감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아마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험한 산에 위험을 무릎 쓰고 올라가는 것일 것이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특히 체육교과의 경우, 동기 부여를 하고 학생들이 노력하게 하는 의욕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미술, 김미영)

체육수업이 아이들에게 과업을 제시해 그것을 달성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몸소 깨달았던 것이다.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도 체육시간의 몫이지만, 체육수업은 놀이 외에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아이들이 그 과제를 수행했을 대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수업에 있어서 체육이란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다시금 학창시절을 회상해 보면서 느끼게 된다(국어, 유성호)

스포츠에서의 재미거리를 밝힌 질적 및 양적 주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스포츠 재미를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상당수의 재미거리들이 스포츠 종목이나 참여의 수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스포츠에서의 성취나 노력이 중요한 재미거리이며, 비취취 차원의 재미거리(예, 친구사귀, 여행)도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스포츠에서의 재미거리에 관한 연구결과는 스포츠에서의 재미가 '사소한' 체험이 아니라 스포츠의 지속적 참여를 결정짓는 핵심적 동기 요인으로 위상을 정립하는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2].

학생들에게 성공 경험을 자주 제공하면 체육에 대한 태도가 변하여 체육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21] 라고 한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그러한 경험은 더욱 중요한데, 신체활동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접하게 되는 시점의 그들에게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통한 성취감의 고양은 긍정적인 자아형성에도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다[18].

이렇게 학생 자신이 신체를 움직이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체육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체육 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4. 아동의 입장에서 칭찬을 통한 자심감 부여

예비 초등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네 번째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선호요인, 그리고 체육수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으로는 교사가 교사의 입장이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칭찬을 함으로서 아이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감을 되찾으니 점점 더 잘하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싫었던 체육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지는 것이었다. 또 매번의 체육시간에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임으로서 모델의 역할을 했던 것은 또한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다. 이런 모든 요인들이 체육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요건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절한 단계를 거치며 체계적으로 배우는 수업 방식과 학생들의 욕구를 적절히 해소시켜주는 것, 체육수업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잘 충족시키는 수업이라고 생각함(국어, 김수현)

나는 모든 운동에 소질이 없는 소위 말하는 운동치에 속한다.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

해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선생님이셨다. 그 체육수업의 목표는 다리 굴러 철봉 오르는 기술이었지만, 지금까지 가슴깊이 남아있는 것은 다리 굴러 철봉 오르는 기술이 아니라 선생님의 인자한 얼굴과 칭찬이다. 나도 초등교사가 되면 아이들을 내 눈높이를 기준으로 재촉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아이들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다려주는 부드러운 선생님이 되어야겠다(음악, 유영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체육교사의 칭찬은 체육수업에 참여를 독려하고 자신감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예비교사인 교대 학생들은 졸업 후 일선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할 때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만 수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학습자였던 경험을 생각하며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체육수업을 생각해 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5. 흥미유발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시

예비 초등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섯 번째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선호요인, 그리고 체육수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체육교사가 수업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략. 그 당시 체육 선생님 덕분에 체육은 땀벌아래에서 땀 뻘뻘 흘리며 숨차서 험뻘거리는 시간, 재미없고 힘들기만 한 과목이라고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볼링, 아이스 스케이팅, 댄스스포츠같이 물론 힘도 들지만 흥미 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체육시간에 운동의 즐거움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평생 시키지 않아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가꿀 수 있게 될 것 같고 나처럼 체육시간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체육시간에 흥미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체육시간에 항상 하는 지루한 종목에서 벗어나 아이들 수준에

맛은 흥미 있는 종목을 해서 특히나 운동을 싫어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운동의 즐거움과 보람을 가르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수학, 김아름)

다양한 성향의 아이들이 체육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에게 흥미 없는 운동으로만 체육시간이 구성된다면 그 아이는 체육수업에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체육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체육교사가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체육수업 시간에 경험하게 하고 어느 한 종목이라도 흥미를 느끼게 된다면 이후 청소년기의 체육수업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신체활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선행연구[13]에서도 실제로 초등학생의 재미거리 분석에서 초등학생들은 새로운 운동을 하고 여러 운동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측면을 체육수업에서의 큰 재미거리로 인식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6. 공동체 의식과 상호작용의 즐거움

예비 초등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섯 번째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선호요인, 그리고 체육수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신체활동을 하면서 갖게 되는 공동체 의식, 즉 상호작용의 즐거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체육수업에 비해 왜 이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체육수업은 다른 체육수업과 달리 보다 상호작용적이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또한 수업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수업에 참여한다, 함께 활동한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마치 친구들과 함께 조 활동을 통해 어울리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활기찬 수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니 만큼 보다 집중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다른 체육수업과는 달리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수업에서는 받기 어려운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나의 문제점을 더욱 더 빨리 파악하고 고쳐나갈

수 있었다(윤리, 김수정).

줄넘기 수업을 하는데 짝 활동을 해서 같이 마주보고 서서 한 개의 줄넘기로 넘는 그런 활동이었다. 이렇게 초등학교 체육수업은 활동을 해도 아이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체육 수업을 통해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신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느끼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미술, 이민지)

초등학생의 재미거리 분석에 관한 연구[14]에서도 초등학생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협동심을 기르고 친구와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결속과 단합 등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스포츠 상황에서 친구와의 친화가 스포츠 참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연구[2]와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체육활동은 단체활동을 통해 남과 함께 하는 것으로 배우기 때문에 체육수업을 통해서 친구들과 협동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체육수업을 특별히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스포츠는 사람들을 한마음으로 뭉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월드컵 경기만 해도 그랬고, 요즈음 인기를 더해가는 프로야구, 축구,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등 많은 스포츠는 작게는 집단, 크게는 온 국민들을 포함한 나라의 범위까지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와 관련하여 김재운[6]은 바람직한 초등학교 체육수업에 관한 연구에서 미래의 초등 교사들은 체육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경험으로 운동기능의 부족에서 오는 체육수업 기피현상, 체육수업의 편법적 운영, 그저 의미 없이 한시간을 흘려보내는 무의미한 체육시간, 체육수업 중 또는 수업 후 신체활동을 하는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일

제식 수업과 아나공 수업으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 요인을 들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수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미래의 초등 교사들은 “적극적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해소, 체육교사와의 인간적 유대관계, 신체활동을 통한 성취의 기쁨, 아동의 입장에서 자심감 부여, 흥미 유발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시, 공동체 의식과 상호작용의 즐거움”요인을 체육수업의 재미요소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요인을 적극 반영하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한다면 교사들은 보다 흥미 있는 체육수업, 보다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체육수업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공을 던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신체를 움직이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체육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체육 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IV. 결론

초등학교 시절의 체육수업과 신체활동은 사회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체육이라는 과목과 더 나아가 운동이라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인식을 형성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활동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들의 체육수업과 신체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사들과 그 이전에 예비 초등 교사들의 체육수업이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은 다른 대상보다도 우선 선행되고 많은 연구의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대체적으로 학문적 관점에서 소외되었던 예비 초등 교사들이 인식하는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거리, 흥미거리, 또는 체육수업 참여 촉진 요인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G 교육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30명에게 보고서와 보고서를 토대로 한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예비 초등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선호요인, 또는 체육수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적극적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분출, 둘째, 체육교사의 인간적 유대관계, 셋째, 신체활동을 통한 성취의 기쁨, 넷째, 아동의 입장에서 칭찬을 통한 자심감 부여, 다섯째, 흥미유발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시, 여섯째, 공동체 의식과 상호작용의 즐거움 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예비 초등 교사들이 초등학교부터 현재까지 체육수업을 받으면서 어떠한 측면에서 재미를 느끼고 선호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나쳐 왔던 체육수업의 구조와 진행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비록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만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지라도 학생의 재미거리, 흥미요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체육수업의 동기유발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초등 교사들은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에서의 체육수업 인 점을 감안하여, 교사는 아동들에게 놀이형 스포츠를 통해 신체활동에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 문헌

- [1] 박은창, 박은서, “중학생들의 체육수업 인식에 관한 주요사건 기록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5권, 제2호, pp.57-69, 1998.
- [2] 김병준, 성창훈, “청소년 스포츠 참가자의 심층 이해(I) : 스포츠 재미거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8권, 제2호, pp.43-60, 1997.
- [3] 김신일, “한국교육 위기의 본질과 정책방향”, 한국논단, 제140호, pp.74-80, 2001.
- [4] 김영갑, 김동석, “태권도지도자의 이미지와 수련생의 재미거리 및 걱정거리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4호, pp.165-173, 2005.
- [5] 김윤희, “중학생들의 체육수업 선호 이유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30권, 제1호, pp.93-110, 1999.

[6] 김재운, “바람직한 초등체육수업에 관한 담론”,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1호, pp.39-47, 2007.

[7] 남상우, “고등학교 체육수업의 재미거리 및 걱정 거리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2.

[8] 문승태, “학교유형에 따른 사회·심리적 변인이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6권, 제2호, pp.65-82, 2004.

[9] 백성수, 성장훈, “중학교 체육수업의 재미요인과 저해요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7권, 제2호, pp.99-116, 2000.

[10] 문은식,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1] 손성도, 김영갑, 김현덕, “태권도 수련생의 수련 정도와 재미거리 및 걱정거리의 관계”, 한국스포츠 산업·경영학회지, 제10권, 제2호, pp.75-88, 2005.

[12] 신용주, 최지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2호, pp.199-210, 2003.

[13] 여경권, 이창섭, 남상우, “초등학생들의 체육수업 재미거리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3호, pp.315-327, 2005.

[14] 이창섭, 남상우, “중학교 체육수업의 재미거리와 걱정거리 척도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3호, pp.161-173, 2003.

[15] 이창섭, 김재운, 남상우, “청소년의 연령별 체격 발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집, 제18권, 제1호, pp.23-29, 2000.

[16] 임무경, 홍준희,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성적과 성별에 따른 재미거리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9권, 제2호, pp.95-106, 2004.

[17] 정찬수, “대학 교양체육의 재미거리와 걱정거리 찾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2호, pp.129-142,

2004

[18] 조진현, 이강현, “중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재미거리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9권, 제1호, pp.112-125, 2004.

[19] I. H. Gross, E. W. Crnadall, and M. M.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5th., N.J:Englewood Cliffs, 1980.

[20] S. B. Mathison, “Why triangulate? Educational Research,” Vol.17, No.2, pp.13-17, 1988.

[21] T. K. Scanlan and J. P. Simons, *The construct of sport enjoyment*. In G.C.Roberts (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pp.199-215, Champaign, IL: Human Kinetics, 1992.

[22] T. Scanlan, P. J. Carpenter, M. Loberl, and J. P. Simon, “Sources of enjoyment for youth sports athletes,” *Pediatric Exercise Science*, No.5, pp.275-285, 1993.

[23] J. P. Spradley,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enhart & Winston, 1979. 박종흡 역, *문화기술적 면접법*,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03.

### 저 자 소 개

김 재 운(Chae-Woon Kim)

정희원



- 2003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체육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 사회학, 여가 및 레저스포츠